



11월의

육계저망



장민기
(본회 육계분과위원장)
버들농원 대표

○ 개 황

10월의 닭값은 염려했던대로 최저 550원대 이하까지도 기록하는 금년도 최저의 가격형성이 되었다.

10월 하순초에 김포지역에서는 또 다시 850원 대로 육계값을 끌어올리고자 시도를 했으나 소비부진으로 인한 공급과잉으로 하여 목적달성을 할 수가 없었던 것 같다.

11월 초, 중순경에 약간의 가격상승은 기대할 수가 있겠으나 이것도 잠시 뿐일 것 같다.

○ 분 석

① 9월의 전기사료 생산이 8월에 비해 약 20% 정도 줄었으나 원체 소비가 부진한 시기여서 11월에도 역시 계육은 공급과잉의 현상이 연속될 것 같다.

② 10월중순 병아리 가격이 형편없이 떨어져 덤핑거래가 난무할 것으로 예상했었다.

그러나 조심스럽게 염려했던 바와 같이 불황 뒤의 호황을 노린 육계사업자들의 끈질긴 입추의욕으로 10월의 병아리는 오히려 부족한 사태로까지 발전하였다.

표 1. 82~85 사료, 병아리생산수, 생산잠재력, 가격 비교

월	년도	사료(천톤)		병아리 생산수 (천수)	잠재력 (천수)	가 격 (원/kg)
		전기	후기			
1	82	10.0	17.4	5,519	10,200	1,177
	83	18.8	29.4	8,659	12,612	1,124
	84	13.4	25.9	7,394	16,521	995
	85	19.3	26.8	11,500	14,596	1,115
2	82	12.6	16.6	6,976	11,404	1,120
	83	20.8	31.4	10,284	13,070	1,047
	84	12.9	16.5	9,356	17,551	1,134
	85	18.8	28.3	12,000	14,519	1,050
3	82	18.8	22.8	10,433	12,918	1,213
	83	27.3	41.5	13,130	13,880	739
	84	23.3	19.7	12,922	18,534	1,353
	85	22.0	31.5	13,000	15,164	750
4	82	23.2	31.0	14,024	13,966	1,213
	83	28.1	43.8	14,004	14,655	739
	84	26.7	30.2	14,060	19,158	1,353
	85	22.9	33.8	14,500	15,719	870
5	82	26.0	36.0	14,420	14,775	1,026
	83	29.2	43.9	13,608	14,845	789
	84	29.9	42.0	16,196	18,809	1,048
	85	25.2	35.6	15,500	16,500	870

6	82	28.5	45.0	15,807	14,923	818
	83	32.1	48.4	15,420	14,239	902
	84	29.0	44.6	13,022	18,124	733
	85	27.7	39.5	16,500	17,000	870
7	82	26.4	49.3	14,661	13,822	923
	83	28.6	49.6	14,464	12,898	876
	84	23.7	41.5	11,433	16,668	987
	85	27.1	42.0	15,000	14,500	950
8	82	22.3	40.4	12,394	12,734	902
	83	26.6	44.9	12,609	11,893	899
	84	20.1	28.8	11,029	14,686	1,180
	85	24.4	33.2	14,000	13,000	1,100
9	82	21.4	44.3	11,867	11,828	816
	83	23.9	48.9	13,340	11,469	802
	84	19.5	29.1	10,038	13,408	977
	85	19.9	35.5	11,500	12,500	880
10	82	17.0	31.3	9,462	11,335	862
	83	22.5	43.3	11,361	11,362	608
	84	19.4	29.5	9,980	13,064	900
	85	(추)18.5	(추)31.0	(추)11,000	13,500	650
11	82	18.1	30.8	10,031	11,541	928
	83	20.3	37.5	10,373	13,389	747
	84	19.6	28.1	10,483	13,810	952
	85	(추)18.0	(추)29.0	(추)11,500	15,000	(추)800
12	82	20.7	36.3	11,520	12,077	1,040
	83	17.9	38.8	8,193	15,069	772
	84	20.8	33.5	10,654	14,349	951
	85					
계	82	245.0	401.2	137,114	151,523	977
	83	296.1	501.4	145,447	159,811	845
	84	258.3	369.4	136,567	194,682	1,000
	85				177,000	

③ 예년의 예로 보아 전기사료의 생산량이 2만톤 미만일 때 육계의 가격은 안정이 되어왔다. 그러나 금년도의 경우는 좀 다를 듯하다. 국제 경제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우리의 소비자들은 소비 심리가 식생활쪽에까지 위축되는 것 같다.

④ 10월 중순경부터 내리기 시작한 계란값이 계속 하락하여 좀처럼 상승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 육계소비에 적지 않은 역작용이 있을 것 같다.

⑤ 82년도부터 이제까지 무려 4년 동안이나 연말부터 2~3월까지의 육계가격이 좋았기 때문에 겨울의 육계산업에 육계 생산자들은 대단한 매력을 느끼고 있으며 금년의 경우 특히 더 과잉생산의 소지가 크다 하겠다.

청문에 의하면 이러한 육계사업자들의 심리를 파악한 부화장에서는 이 시기를 맞추기 위해 상당수의 종계를 강제 환우하여 적기 병아리를 공급할 예정으로 있는 것 같다.

⑥ 본회 육계 분과위원회에서는 그래도 10월 말부터 11월까지가 육계병아리의 생산이 가장 적을 것으로 예상하고 이 기간중엔 무리한 입추는 삼가할 것을 당부하면서 조심스럽게 입추를 중용키로 했다.

⑦ 어쨌든 금년 겨울의 육계산업은 별로 매력없는 사업이 될 것이기에 추운 날씨에 고생하고 돈 잃는 어리석음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표 2. 표본 10개 사료메이커의 생산량 순별 비교

사료	순 년도	6			7			8			9			10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전기	84	3,404	3,409	3,853	3,094	2,997	2,977	2,413	2,393	3,022	2,543	2,417	2,531	2,337	2,461	2,524
	85	3,066	3,388	3,518	3,332	3,071	3,231	2,671	2,819	3,182	2,475	2,380	2,215	2,240	1,979	(추)2,100
후기	84	4,933	5,099	5,313	4,663	4,993	5,015	3,580	2,673	3,874	3,097	3,821	3,332	3,216	3,214	3,145
	85	3,182	3,451	4,264	3,962	3,984	4,258	2,890	2,454	3,494	3,019	3,741	3,642	3,190	3,054	(추)3,000
계	84	8,337	8,508	9,166	7,757	7,990	7,992	5,993	5,066	6,869	5,640	6,238	5,663	5,553	5,675	5,669
	85	6,248	6,836	7,782	7,294	7,055	7,489	5,561	5,273	6,676	5,494	6,121	5,857	5,430	5,033	(추)5,100